

만남의 '안녕' 과 헤어짐의 '안녕'

회교 율법에 따라

3명의 아내가

한 남자와 한 집 안에서

살 수 있는 나라

나이지리아.

거리에서 낳아

거리에서 살고

거리에서 죽는 사람이

3~4천만이나 된다는 나라 인도.

그런 인도에 '끝' 이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어제' 도 되고

'내일' 도 되는 말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만났을 때와

헤어질 때의 인사말이

모두 '안녕' 이다.

언어 습관이라고는 하지만

비과학적인 문화의

단면이 아닐런지...

최첨단과 전근대가 공존하는 나라가 어디 인도뿐이라.

지난 세계청소년축구대회가 열린던 나이지리아도 그 곳 사람들의 삶에 그런 삶의 굴곡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는 마찬가지였다.

그 곳에서 만난 '원주민' 의 모습은 전근대를 넘어서서 '원시' 와의 공존이었다. 그들의 삶은 험거생활에 가까웠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자동차로 1시간 정도 거리인 대도시에서는 벤츠가 달리고, 일요일이면 정장을 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보고 있었다.

방안은 흙바닥 그대로이고 염소와 닭이 아이들과 함께 그 흙바닥을 드나들며 생활하는 마을. 추장이라고 불리는 '마을 어른' 이 있어, 그 사람에게 인사를 하고 허락을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했던 취재였다.

한 회교도 원주민의 집에는 3명의 아내가 한 지붕 밑에서 살았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 아이들의 옷차림이며 행색이 서로 틀렸다.

맨발의 아이가 있는가 하면 양말을 신은 아이도 있었다. 영문자가 들어간 티셔츠를 입은 아이도 있었지만 땀국이 흐르는 팬티조각을 하나 걸치고 뛰어노는 아이도 있었다.

3명의 아내 한 집서

의아해 하며 사유를 묻는 나에게 통역을 도와주던 현지인이 말했다.

“어머니의 능력에 따라 저렇게 서로 다른 겁니다.”

회교 율법에 따라 3명의 아내가 한 남자와 한 집에서 살기는 하지만, 어머니들은 철저하게 자기가 낳은 아이는 자기가 양육한다는 것이었다.

인도는 인구통계가 없는 나라라고 흔히들 말한다. 거리에서 태어나, 거리에서 살다가, 거리에서 죽어가는 인구가 3천만이니 4천만이니 한다. 인도를 여행하다 보면 이 말이 실감이 난다. 말 그대로 거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만나게 된다.

그러나, 드넓은 국토 탓도 있었겠지만 국내선의 모든 비행기를 제트기화 한 세계 최초의 항공사가 인도항공이다.

연발 연착이 다반사라고는 해도, 내가 취재차 인도를 떠들던 시절만 해도 그 항공편이 그토록 고마울 수가 없었다.

다만 서클프기까지 했던 것은, 지방의 공항에 내리면 공항 활주로 밖의 철조망을 따라 가득 늘어서 있는

韓 水 山 <작가/세종대 교수>

사람들이었다.

무슨 일인가 했더니,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것을 보려고 구경나온 사람들이라고 했다.

넘치는 노동력이 그늘에서 줄거나, 비행기 뜨는 것이라도 보려고 공항 활주로 밖에 몰려나와 그 꿈꾸듯 큰 눈을 껌벅이고 서 있다니.

그렇게 비행기를 타고 옆자리에 앉게 된 인연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사람들이 한결같이 인도의 가장 큰 국내문제로 꼽는 것이 과다한 출산이었다.

모든 경제적 어려움을 아이를 너무 많이 낳는데서 원인을 찾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일도 있었다고 했다. 산아제한을 권장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정관수술을 하는 사람에게는 얼마쯤의 포상금을 주기로 했었다고 한다.

그러자 그 포상금을 타려고, 결혼도 하지 않은 총각들이 너도나도 정관수술을 받는 바람에 이것이 또다른 사회문제가 되었다던가.

하긴 내가 여행을 하고 있던 그때, 길거리 담벽에 커다랗게 써 있는 글씨가 있어, 무슨 내용인가 물어보았더니, '정부에서 치약을 무료로 나눠주고 있으니 모두들 타다가 깨끗이 이를 닦읍시다' 라는 표어였다.

그런 인도에, '깔'이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시간을 뜻하는데, 깔은 어제도 되고 내일도 되는 말이다. 시간관념이 유장하다고나 할까.

그래서인지 제 시간에 떠나는 비행기가 없고, 버스가 없다. 늦게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먼저도

떠나버린다.

'깔'은 어제·내일의 뜻

그때마다 생각한 것이 있다. 이런 일상사가 전근대적이라기 보다는 인도인의 시간에 대한 개념이 다른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이었다.

똑같은 단어가 어제도 되고 내일도 되는 이중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듯이 말이다.

우리에게도 이런 언어 습관은 있다. '안녕'이라는 말이 그렇다. 안녕이라는 말을 우리는 헤어질 때도 쓰고, 만날 때도 쓴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히 계십시오. 이때의 '안녕'은, 편안하십니까, 편안히 계십시오와는 다르다.

만남과 이별을, 함께 있음과 떨어져 생각함을 하나의 의미로 한국인은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을 품게 하는 언어 습관인 것이다.

그리고 이처럼 수리적이기 못하고 비과학적인 것이 우리 문화의 한 단면이기도 하다.

문명은 보편성의 산물이라고 한다. 더 빨리, 더 많이, 더 편리하게... 이런 보편성이 만들어낸 것이 문명인 것이다. 그러나 문화는 다르다.

그 풍토 안에서 몇 만년을 살아오는 동안 그 곳 사람들이 만들어 낸 삶의 양식이며, 눈물과 기쁨과 위안이 담겨 있는 것이 문화이기에 그것은 보편성과는 거리가 있다.

모든 민족의 통과의례가 그토록 다른 것도 그것이 문화이기 때문이다. 보편적이지 않은 특수성, 편의보다는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전수되어 온 불

편함이 문화의 한 특색이기도 하다.

그때 인도에서 만난 '반공포로'가 있었다. 북한군 포로였으면서도 6.25 후에 북으로 돌아가지 않고 제 3국을 선택해서 인도로 간 사람이었다.

그는 인도에 온 후 북한 여권을 소지한 채 살아가고 있었다. 물론 남과 북 어느 쪽과도 교류가 없이 살아온 30여년이였다. 그가 나를 만나 가장 이해할 수 없어 한 것은 한국의 아파트였다.

그 추운 한국의 겨울을 냉방에서 어떻게 사느냐는 것이었다. 15층 아파트까지 방바닥에 온수 파이프를 깔아서 따뜻하게 지낸다면서 내가 아무리 중앙공급식 난방시설을 그림을 그려가면서까지 설명을 해도 그는 끝내 믿으려 하지 않았다.

온돌이라고 하는 한국형 주거문화를 보편성 있게 과학적으로 국제화한 난방시설이, 더운 나라에만 살아온 그의 국지성으로는 결코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다.

지난 정권에서 '국제화'를 추진했던 것은 어휘선택에서부터 혼란을 가져왔다는 진단이 있다. 우리가 추진해야 하는 것은 '국제화'가 아니라 글로벌한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국제화 대책'이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만남과 헤어짐을 하나의 어휘 안에서 치러내는 한국인에게 있어, 그리고 한국 문화에 있어, 보편성이 최고의 덕목이 되는 국제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비해야 할지를 뜻깊게 생각해 보아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⑤7